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2

SONGDO
INTERNATIONAL
CITY

바다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시



바다 위에 그린 꿈

송도국제도시의 탄생과 도전

인천연구원 엮음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총서는 인천의 근현대사와 도시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인천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정책을 통해 도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며,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총서는 단순한 과거의 회고를 넘어, 인천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술채록을 통해 인천의 변화상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문도시연구총서 발간 조사 연구진

총괄
이인재 (도시정보센터장)

기획
도시정보센터

구술채록 및 실무
홍승연 (도시정보센터 전임연구원)

편집지원
김혜영 (연구기획실 전임행정원)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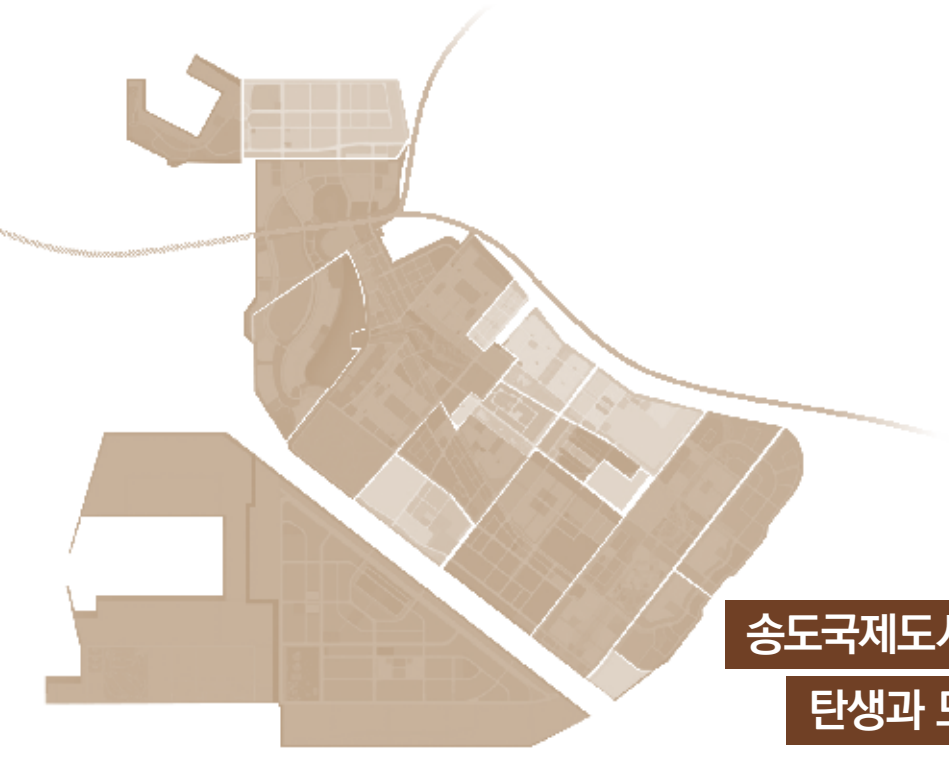
바다 위에 그린 꿈

인천연구원 엮음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2

바다 위에 그린 꿈

송도국제도시의 탄생과 도전



인천연구원 엮음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발간사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총서는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가 2000년대 이후 인천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도시 기록사 시리즈입니다. 2013년부터 발간한 인문도시연구총서가 시민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인천의 생활상과 도시 경관의 변천을 기록해 왔다면,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은 인천의 도약을 견인한 주요 프로젝트와 정책 현장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송도의 변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까이에서 지켜본 세 분의 기억을 통해 그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 현장에서 송도의 초기 구상과 공간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제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뛰었던 행정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속에서 송도의 의미를 고민했던 연구자의 시선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일이 물리적 공간 조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 현장의 노력이 결합된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제기구와 직접 협상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관계자들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중앙정부와 국제기구를 설득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송도에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회의가 자리 잡기까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노력과 도전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송도의 역사는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송도를



구상할 당시의 목표와 오늘의 모습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과 함께 송도의 성장이 인천의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구술 기록이 과거의 성취를 되돌아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인천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발간을 위해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들려주신 구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료 제공과 발간 과정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총서를 통해 축적해 온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인천

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책이 송도국제도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인천이 만들어 온 도시의 시간과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인천연구원장 최계운

목차



허허벌판에서 국제도시까지, 송도를 만들던 시간
김용하의 이야기

공항과 함께 시작된 송도의 시간 • 21
-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서기까지 • 21
- 공항만으로는 도시가 되지 않는다 • 24
- 땅은 생겼지만, 아직 도시는 아니었다 • 29
- '정보화 신도시'라는 새로운 실험 • 30

주택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방향을 틀다 • 32
- 공항·항만·송도를 하나로 잇는 '트라이포트' • 32
- 외환위기, 송도 개발이 멈춰 설 번하다 • 33
- 송도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 • 37

허허벌판에 사람과 기관을 불러들이다 • 41
- 국제도시를 채울 '첫 번째 닻'을 찾아서 • 41
- 농업용 매립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청라의 변신 • 45
- 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잇다 • 46
- 실패로 끝났지만 계획은 남았다 • 49
- 외국 개발사가 그린 새로운 송도의 풍경 • 51

국제도시 송도, 그 선택과 남은 과제 • 55
-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송도의 선택 • 55
- 돌이켜본 송도 개발의 성과와 한계 • 58



명함 한 장에서 시작된 국제도시의 길
강병진의 이야기

송도에 국제기구의 문을 열다 • 63
- 송도의 첫 국제기구, APCICT를 유치하다 • 63
- 국제기구를 맞이하기 위한 전담팀의 탄생 • 65
- 송도에 들어선 대한민국 첫 UN 공식기구 • 69

혼자서 길을 찾다 • 71
-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구조 • 71
-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 75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 • 77
- 참관인 자격으로 간 국제회의 • 77
- 명함 한 장의 가치 • 78

송도를 동북아 국제협력의 거점으로 • 82
- 베이징과 경쟁해 따낸 ESCAP 동북아사무소 • 82
- UN ESCAP 총회를 송도로 가져오다 • 85

성공과 좌절 속에서 쌓인 국제도시의 경험 • 87
- 끝내 잡지 못한 국제기구들 • 87
- 재난·환경·법률 분야로 넓어진 국제기구 유치 • 89
- 유치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었다 • 94

목차



처음의 꿈에서 남은 과제까지, 송도를 다시 보다
이인석의 이야기

개항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이어진 도시의 흐름 • 101

바다 위에 그린 관문 도시 •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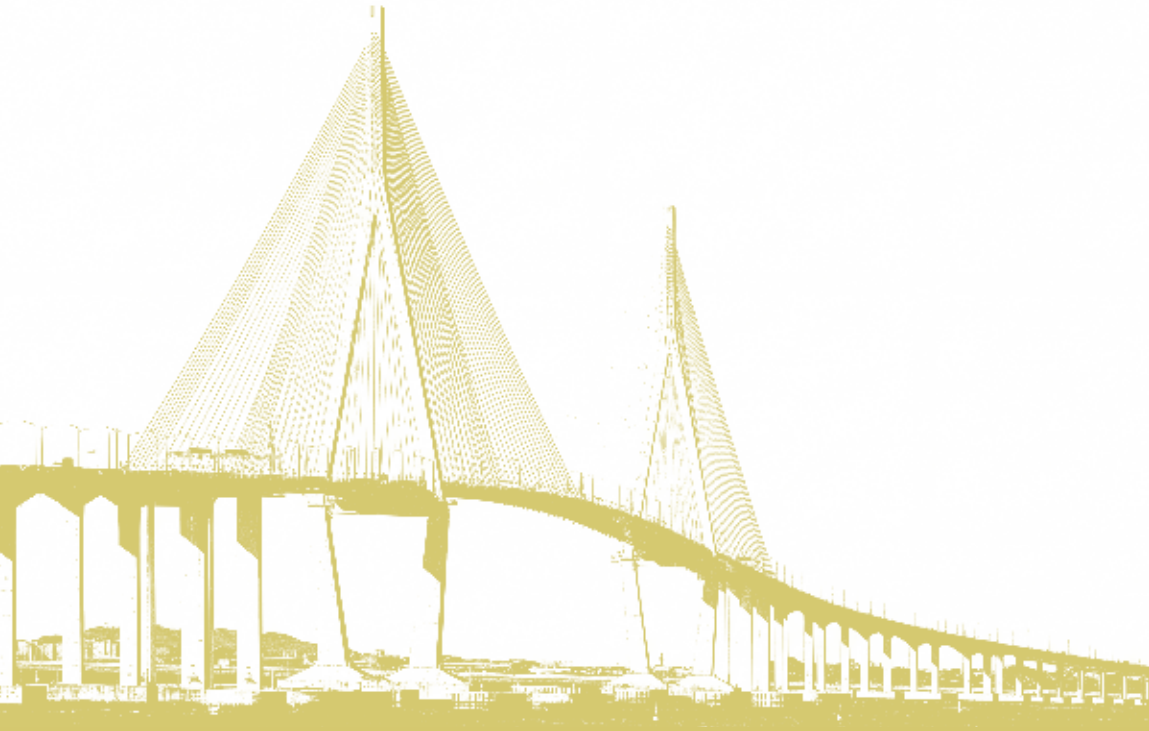
'한국형 실리콘밸리'라는 꿈을 다시 보다 • 106

처음의 꿈과 남은 과제 • 107

그림 차례

[그림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상량식 ····· 22
[그림 2] 인천국제공항 부지 선정 과정 ····· 23
[그림 3] 세계자유도시 구상 ····· 25
[그림 4] 1994년 송도유원지와 아암도 ····· 26
[그림 5] 송도 주택 신도시 개발계획 ····· 28
[그림 6] 최기선 시장, 송도 미디어 밸리 관련 김대중 대통령 업무보고 ····· 31
[그림 7]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개요 ····· 32
[그림 8] 인천신도시조성사업 기공식 ····· 34
[그림 9] 송도개발 초기 랜드마크 갯벌타워(당초 송도 테크노파크 벤처빌딩) ····· 35
[그림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 36
[그림 11] 컨벤시아교 건설 전의 모습 ····· 40
[그림 12] 허허벌판이었던 송도 매립지(2001) ····· 42
[그림 13]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 43
[그림 14]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마스터플랜(2009) ····· 44
[그림 15] 영종대교 전경 ····· 47
[그림 16] 인천대교 전경 ····· 48
[그림 17] 송도컨벤시아 2단계 확장공사 현장 ····· 50
[그림 18] 송도국제도시개발구상 국제지명공모(1998) ····· 51
[그림 19]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구상(KPF안) ····· 53
[그림 20] 송도의 상징 센트럴파크와 동북아무역센터(現, 포스코타워) ····· 54
[그림 21] 세련된 고층 고급아파트 ····· 56
[그림 22] 2013년 조성된 송도 한옥단지 ····· 57
[그림 23] (上) 송도신도시 기본구상(2000.7.) / (下) 송도국제도시계획(2025.7.) 59
[그림 24] UN APCICT Frontier ICT 프로그램 출시 기념행사 ····· 65
[그림 25] UN ESCAP 총회 개회식 송도 ····· 66

[그림 26] 송도 G-타워 ····· 68
[그림 27] 송도국제도시 항공사진 ····· 72
[그림 28]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송도 G타워 ····· 74
[그림 29] 송도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지원체제 국제회의 ····· 76
[그림 30] 송도 G타워 ····· 79
[그림 31] UN ESCAP 동북아 5개국 대표 자문회의 인천 개최 ····· 83
[그림 32]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소장 방문 ····· 84
[그림 33] UN ESCAP 총회 송도 컨벤시아 ····· 85
[그림 34] 국제회의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는 송도컨벤시아 ····· 86
[그림 35] UN ISDR 캠페인 가입 조인식 ····· 90
[그림 36] 제4차 UN 재해경감아시아각료회의 개막식 ····· 91
[그림 37] UN기구기탁도서관(現,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93
[그림 38] 인천 소재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함께한 국제협력 행사 ····· 94
[그림 39]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 ····· 95
[그림 40] 국제기구와 함께 성장한 송도 ····· 96
[그림 41] 개발 중인 송도 전경 ····· 103
[그림 42] 인천대교 ····· 104
[그림 43] 송도국제도시 전경 ····· 106
[그림 44]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B.C 개발사업 일대 ····· 108
[그림 45]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B.C 개발사업 일대 ····· 109



일러두기

1. 구술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살리고자 했습니다.
2. 구술 내용 중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나 각주를 활용해 부연했습니다.
3. 출처 표기가 없는 사진은 구술자 혹은 면담·구술채록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4. 본문에 사용한 편집 기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투리나 잘못된 외래어 등의 표준어 표기나 문맥상 그 의미를 표시.

   [ ]인터뷰 상황을 나타내는 글 표기.

   …… 구술자가 구술을 중단하거나 말을 줄일 때 표기.

허허벌판에서 국제도시까지, 송도를 만들던 시간

김용하의 이야기



- **채록일** 2025. 9. 16.
- **채록자** 홍승연
- **채록 장소** 구술자 자택

-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인천의 도시 개발과 공간 변화 연구에 30년 이상 종사해 왔다. 1995년 4월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초대 단장으로 부임해 동아 매립지 용도 변경, 송도유원지 대우타운 조성 등 주요 도시계획 현안을 다뤘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발전연구원(現,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하였으며, 개항장 근대건축물 보전과 송도 신도시개발을 비롯한 인천의 중장기 도시계획과 발전 방향을 연구했다. 현재는 인천도시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항과 함께 시작된 송도의 시간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서기까지

영종도는 당시 다리도 없는 섬이었지만, 수도권 서쪽 관문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후보지로 힘을 얻었어요. 공항의 입지 결정은 곧 교량과 도로, 배후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종도 공항이 들어서면서 송도와 청라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영종도는 1989년 1월 1일, 인천으로 편입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경기도 옹진군에 속해 있었죠. 당시 영종도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종도, 용유도, 신불도, 삼목도라는 4개의 섬이 서로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죠. 당시는 영종대교, 인천대교도 없었고 염전이 있던 조용한 섬이었어요.

당시 김포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은 소음 문제로 24시간 운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이웃 나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어요. 싱가포르 창이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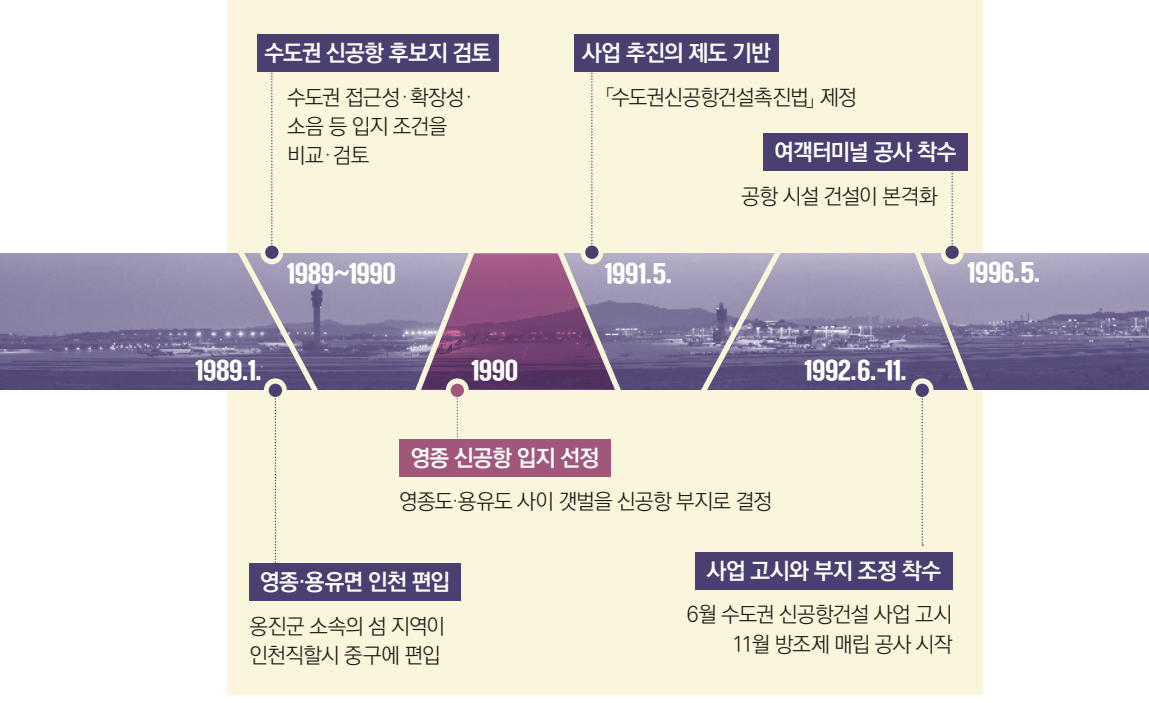
[그림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상량식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촬영일: 1999.1.28.)

항, 중국 상하이 공항, 베이징 공항 등 아시아 각국이 바다를 매립해서 거대한 국제공항을 짓고 있었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도 준공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수도권 제2 국제공항 부지를 찾기 시작했죠.

부산에도 국제공항이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성 신도시, 새만금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을 검토했어요. 공항부지는 수도권과의 거리도 중요했지만, 교통시설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따져가며 부지를 검토했었죠. 원래 국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자체 간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거든요.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결국 1차 선정 작업은 검토 단계에서 중단됐었어요.

그렇지만 인근 국가에서 국제공항이 속속들이 확장하고 개항



[그림 2] 인천국제공항 부지 선정 과정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공사 1단계 건설사업」

하는 환경에서 다시 국제공항을 지을 부지 선정을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영종도로 결정됐어요. 이때는 송도 개발보다 훨씬 이전이었죠.

그때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철새 때문에 충돌 사고가 날 것이고,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해무가 많아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날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영종도는 다리도 없고 염전이 있는 섬인데 왜 거기에 공항을 짓느냐는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이유로 영종도가 최종 결정됐어요.

공항만으로는 도시가 되지 않는다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주변이 저절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과 화물이 공항을 거쳐 지나가기만 하면, 공항은 거대한 관문으로 남을 뿐이죠. 기업이 머물고, 연구와 교육이 이어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항이 도시와 연결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항 배후에 뭔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나온 개념이 '공항 배후도시'이고, 당시는 송도를 개발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용어가 아닌 '세계자유도시'라는 표현을 썼



[그림 3] 세계자유도시 구상
출처: 김용하 제공

어요.[1] 당시 영종도를 대상으로 세계자유도시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오명 장관이었어요. 오명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당시 비서관으로 있었고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분이죠. 이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오명 장관은 그 후 뉴욕주립대학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캠퍼스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요.

1986년에도 송도유원지앞 갯벌 매립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착공한 것은 1994년 9월 10일이었어요. 관선 시장, 그러니까 정부가 임명하던 시장 시절부터 송도 앞바다를 개발하겠다는 구

1 공항 배후도시는 공항 인근에 주거, 물류, 기업 활동, 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갖추어 공항 이용자와 관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 또는 도시권을 말한다.



[그림 4] 1994년 송도유원지와 아암도
출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김용하 제공

상은 있었거든요.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민선 체제로 바뀌었고, 이 계획도 다른 정치적 환경과 함께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비서였던 최기선 시장이 송도 개발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죠. 최기선 시장은 인천의 마지막 관선 시장을 지낸 뒤 민선 시장으로도 일했어요.[2] 그래서 관선 시절부터 이어지던 송도 개발 구상과 민선 이후의 추진 과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었죠.

2 최기선은 제7대 인천직할시장 및 민선 제1·2대 인천광역시장 역임하였다.

그 이전에는 환경부가 반대했어요. 기존의 서산도 있고 동아매립지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데, 멀쩡한 송도 앞바다를 메운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단체의 반대도 워낙 심했으니 당시 인천시로서는 숙원사업이었죠.

노태우 정부(1988~1993) 당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포함해 주택 2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었어요. 수도권 주택 부족을 풀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강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송도를 처음에 국제도시보다 주택도시로 설명해야 허가와 개발 명분을 얻기 쉬웠던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송도 부지를 아파트 주택지로 쓰고 다른 건 하지 않겠다고

[표 1] 송도 초기 개발의 주요 단계(1979~2003)

일시	주요 경과
1979	송도지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1984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송도신도시 반영
1986	송도정보화 신도시 조성계획 수립
1990.6.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영종도)
1994.9.	송도정보화신도시 매립공사 기공식(17.7㎢)
1998.10.	개발기본구상안 국제지명공모
2000.7.	송도정보화 신도시 최종 기본구상
2001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 확정
2003.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3.8.	송도·영종·청라지구, 우리나라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그림 5] 송도 주택 신도시 개발계획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김용하 제공

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허가를 받았어요.

약 535만 평(17.7㎢)만 매립하겠다는 조건으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제2기 신도시 사업으로 주택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최기선 시장 때는 1, 2, 3, 4공구만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1공구까지 와 있어요.

땅은 생겼지만, 아직 도시는 아니었다

매립 사업은 바다를 메우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막상 땅이 생겨도 배수나 전기, 통신 같은 기반 시설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업도 주민도 들어오기 어렵죠. 초기 송도는 땅이 없어서 못 쓰는 곳이 아니라, 땅은 생겼지만, 아직 도시가 될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땅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공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분양은 더디고, 현금으로 줄 돈이 부족하니 땅으로 대신 갚는 방식까지 나왔던 거죠. 대물로 받은 땅을 다시 팔아 사업을 이어가야 했으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송도 땅은 자산이면서도 리스크가 있었죠.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대우 등 국내 대형종합 건설사들도 공사비 대신 대물로 송도 땅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언제 또 팔아서 집을 짓고 수익을 내냐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풍림이나 성지 같은 이름 없는 건설회사들이 땅을 받아냈어요.

당시 땅을 매립하는 비용이 평당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반 시설을 하면 25~5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반 시설은 도로만 닦아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전기나 통신 시설을 넣은 건 나중의 일이었어요.

‘정보화 신도시’라는 새로운 실험

송도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 업무, 바이오, 스마트시티를 내세운 곳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주택 공급지로의 신도시 성격이 강했고, 공항과 통신 인프라가 이야기되면서 정보화 신도시라는 이름이 붙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IT라 할 수 있죠. 1990년대 정보화 신도시는 통신망, 연구시설, IT 기업과 인력을 먼저 끌어들여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삐삐나 큰 핸드폰을 쓰던 시기였으니까요.

영종도가 1990년 6월 신공항 입지로 선정되고 나서, 1992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어요. 공항이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통신이잖아요. 그러려면 기지국이 필요하니까 기지국과 통신망을 갖췄다는 의미에서 정보화 신도시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송도지구의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가 바로 지식기반산업 허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당시 미디어 밸리가 1996년 11월에 송도신도시로 입주가 결정됐고, 뒤이어 테크노파크 사업 중 하나가 송도신도시에 자리 잡으면서 정보화 신도시 개발은 더 탄력을 받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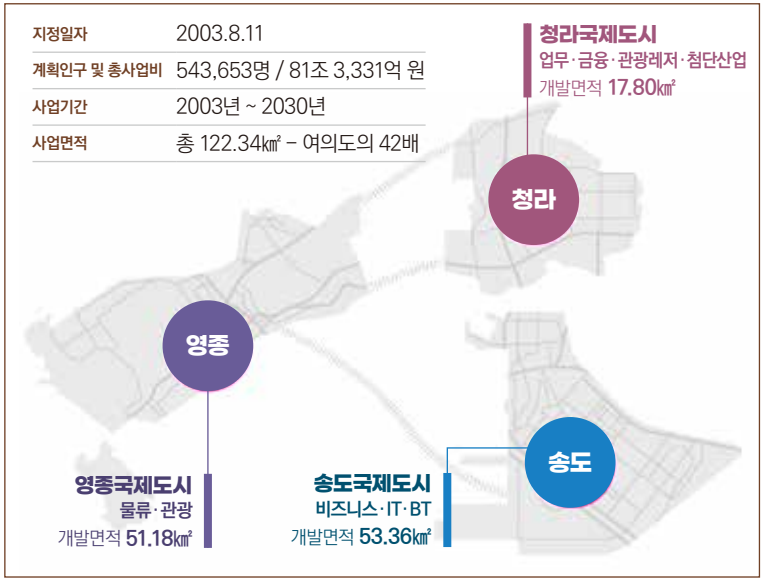
[그림 6] 최기선 시장, 송도 미디어 밸리 관련 김대중 대통령 업무보고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촬영일: 1998.9.7.)

1996년 전경련 산하의 미디어 밸리 추진위원회가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인천국제공항(Air-port), 인천항(Sea-port), 정보화 신도시 송도(Tele-port)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기획안으로 제출하면서 송도가 미디어 밸리 입지로 결정됐어요.

주택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방향을 틀다

공항·항만·송도를 하나로 잇는 '트라이포트'

트라이포트란 영종과 송도, 청라를 각각 따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이었어요. 영종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과 화물이 드나드는 관문 기능을, 송도는 국제 업무와 정보산업 기능을, 청라에는 업무와 금융, 관광 레저와 같은 기능을 나눠 맡기자는 생각이었죠.



[그림 7]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개요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

이런 구상의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박연수 씨가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었을 때였는데 당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지구로 송도를 구상하고 1988년 4월, 이재창 시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초도순시(初度巡視) 때 이 계획을 보고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 사업으로 발표한 거죠. 이 계획은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프로젝트로 확대 발전되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어요. 홍콩 반환을 앞두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2002년 7월 정부는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침, 송도는 매립 중이었으니까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외환위기, 송도 개발이 멈춰 설 뻔하다

1990년 11월 건설부에서 매립 승인을 받았고, 1991년 5월 송도 개발 최종 계획이 확정됐어요. 하지만 중앙부처의 이견으로 3년 동안 착공이 미뤄졌어요. 당시 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수도권 억제 정책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정권이 바

뀔 때마다 정부를 설득해야 했어요. 그러다 1994년 9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드디어 인천 송도 앞바다 매립 신도시 조성 기공식이 열렸어요.

당시 계획은 1, 2단계로 나뉘어 있었고, 1단계는 2006년까지 진행한다는 구상이었어요. 2006년까지 총사업비 1조 7,424억 원을 투입해 송도 앞바다 54.25㎢를 매립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죠.

송도 프로젝트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우여곡절 끝에 2000년에 1~4공구(12.67㎢)의 매립까지는 마무리했지만,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나면서



[그림 8] 인천신도시조성사업 기공식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촬영일: 1994.9.10.)



[그림 9] 송도개발 초기 랜드마크 갯벌타워(당초 송도 테크노파크 벤처빌딩)
출처: 김용하 제공

개발이 다시 중단되기도 했어요.

IMF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던 송도 프로젝트는 IMF 관리 체제를 졸업한 2001년, 초기 랜드마크인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의 착공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어요.[3] 2004년 완공된 갯벌타워는 황량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송도 한가운데 우뚝 자리 잡으며 내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에 「경제자유구

3 2001년 착공한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은 2004년 준공되었으며, 현재 갯벌타워로 불린다.



[그림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촬영일: 2003.10.15.)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3년 8월,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으로 드디어 송도·영종·청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제1호였죠.

1994년에 송도 매립이 시작됐으니까, 9년 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셈이에요. 이제 송도는 단순한 주택 신도시를 넘어 해외 기업과 국제 기능을 끌어들이는 도시로 방향을 넓히게 됐죠. 경제자유구역이 곧 보세구역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수입, 가공, 수출이 이어지는 물류와 제조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서 서로 맞물려 있었어요. 해외 기업을 유치해서 원자재 수입부터 가공,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보세구역 개념으로 발전한 거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연구와 기획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했어요. 시 내부 추진부서는 윤석윤 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개발사업기획단(現, 인천도시공사)이 꾸려지고, 미래 인천도시를 종합 연구하는 인천발전연구원(現, 인천연구원)은 1996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연구원이 6명밖에 없었고, 시청 인근 경기은행 지점 한 층을 빌려서 시작했어요. 8구 2군 각 기초지자체에서 1억씩 출연하여, 10억 원을 만들고, 시에서 추가 출자하여 30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보르네오라는 가구 업체가 사무 가구를 지원해 줬어요. 송도에 사무실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현재 연구원이 리모델링 공사 중일 때 임시로 송도 테크노파크본부 5층 건물에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연구원이 당시 설립되면서 송도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연구를 담당하게 된 거죠.

송도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

도시를 만드는 일은 건설회사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산

업을 넣을지, 외국 기업과는 어떻게 협상할지, 교통과 통신은 어떻게 연결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죠. 1990년대 중반에 전문직 제도가 도입됐어요. 인천시가 전문직을 따로 뽑아 기획 조직에 배치한 건, 대형 개발사업을 행정의 일상 업무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송도 개발 초기의 전문직들은 건물 하나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없는 도시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모를 준비하고, 대학과 기업을 만나고,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 일이 모두 한데 얽혀 있었죠.

당시 시에 배치된 전문직은 의사, 약사, 헬기 조종사처럼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전문직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전문직 제도가 정치적 인사 배치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당시의 전문직 개념은 달랐어요.

송도는 정보화 신도시니까 IT 전문가도 필요하고, 영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전문가도 필요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했죠. 도시계획 전문직 4~5명, IT나 외국어 전문가 등 총 15명 내외가 배치됐어요. 전문직들은 도시계획국과 정무부시장 산하 기획실장 직속으로 일했어요. 저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문직 가급으로 참

여했고요.

전문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테크노파크의 유치였어요. 산자부에서 5년 동안 50억씩 지원해 주는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매칭펀드니까 시에서도 50억을 내야 했고, 총 500억 규모였어요.

공모 준비를 위해 인하대, 인천대 교수들과 전문직들이 참여해서 길병원 연수원에서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밤샘 작업으로 유치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결국 유치에 성공해서 4공구에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됐죠.

토지이용계획에는 인하대 연구단지, 인천대 연구단지도 포함됐어요. 인하대는 최근에 항공우주융합캠퍼스도 입주시켰어요. 인천대와 바이오 기업은 4공구에 입주했는데 삼성바이오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11공구로 옮겨가게 됐어요.[4]

삼보 컴퓨터도 끌어왔고, 테크노파크도 조성했어요. 지식산업단지에는 공장은 들어올 수 없고 연구기관만 입주할 수 있었어요. 지식산업단지의 평당 땅값은 저렴했지만 2년 내에 건물을 짓고 입주하지 않으면 부지를 환수하는 조건이었어요. 땅값

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확장을 위해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약 18만 7,427㎡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였다(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



[그림 11] 컨벤시아교 건설 전의 모습
출처: 김용하 제공

을 올리려고 부지만 사두고 입주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당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업체들이 진짜로 들어와서 연구하는지, 허위 입주는 아닌지, 임대는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어요.

초기 건물로는 5층짜리 테크노파크 건물이 있었고, 20층짜리 고층 건물도 공사 중이었어요. 당시는 송도로 들어오는 다리가 없어서 택시도 매립지 입구까지만 갔었죠.[5] 배달은 중국 음식만

5 당시는 교량이 건설되기 전이었으며, 육지와 송도 매립지 사이에 폭 300m의 수로가 있었다.

가능했어요. 비가 많이 올땐 집에도 못간 날도 많았지요. 저도 테크노파크 건물에서 3년 동안 근무했는데, 당시는 정말 물바다 시절, 허허벌판이던 시절이라 할 수 있어요.



허허벌판에 사람과 기관을 불러들이다

국제도시를 채울 '첫 번째 닻'을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매립지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이었어요. 학교나 연구소, 병원, 컨벤션센터처럼 기관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주거와 상업, 교통과 서비스가 따라오잖아요. 그런 시설을 앵커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텅 빈 도시에 자리를 잡아 주는 닻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송도도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의 반발이 컸죠.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 국내 업체가 다 죽지 않느냐는 우려였어요. 외국 업체가 원자재를 가져와서 바로 수출하는 게 바로 보세구역이거든요. 지금이야 한국 기업들도 들어오지만 처음에는 삼성도 자격이 안 됐어요.



[그림 12] 허허벌판이었던 송도 매립지(2001)
출처: 김용하 제공

[표 2] 경제자유구역과 보세구역의 개념

구분	경제자유구역	보세구역
핵심 목적	투자·기업 활동과 생활 여건 개선	수출입 물품의 보관·가공·제조·전시
적용 범위	도시·산업을 위한 개발 제도	세관장이 지정·특허한 통관 공간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및 관세청 홈페이지

그래서 생각한 게 인천대학교 유치였어요. 당시 인천대는 1994년 3월 시립화한 직후였으니까 시립대에 50만 평의 땅을 줄 테니까 송도에 들어오라고 유치하려고 했어요.[6] 교육시설을 앵커시설로 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인천에는 인하대학교랑 인천대

6 인천대학교는 1994년 시립대학으로 전환된 뒤,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13]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17.7.29.)

학교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인하대도 구성원 대부분이 서울 출신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서울서 온 사람들의 눈에 인천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물바다에 학교를 지으니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거죠. 공무원들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했어요. 상세한 과정은 모르지만, 여러 복잡한 유치 단계를 거쳐서 연세대 영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연세대에 땅 50만 평을 줬어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현재 연세대가 있는 자리가 처음 인천대에게 제안했던 자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죠. 당시는 1, 2, 3, 4공구까지 밖에 없었을 때니까 지금 컨벤션센터가 있는 곳 일대의 50만 평을 주려고 했



[그림 14]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마스터플랜(2009)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김용하 제공

던 거였어요. 당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그 일대가 파란색으로 학교 용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송도에 연세대를 유치하면서 50만 평을 주되, 십몇만 평은 아파트를 지어서 남은 이익으로 건물을 지으라고 했어요. 지금 롯데 아파트가 거기 있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에 50만 평 부지를 연세대에 주고, 그중 일부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롯데 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이익으로 부지 비용을 다 갚고 지금의 캠퍼스로 조성한 거예요. 연세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물까지 다 조성한 셈이죠.

농업용 매립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청라의 변신

트라이포트, 즉 영종·송도·청라 이야기를 하려면 청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청라의 역사는 송도와는 조금 달랐어요. 송도가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앞바다를 메웠다면, 청라는 농업용 매립지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용도 변경과 소유권 변화를 거친 땅이죠. 청라 동아 매립지 개발은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건설 붐과 연관되어 있어요. 당시 현대나 동아 같은 큰 건설사들이 중동 건설 붐을 타고 해외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해외 공사에 큰 타격을 입었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곳도 있었고, 중장비를 국내로 되가져와야 하는 상황도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국내에 중장비 가져왔더니 당장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서산에다가, 동아건설은 청라를 매립하게 된 거예요. 매립 목적은 농업용이었어요. 동아건설이 1,200만 평을 매립했는데 88 서울 올림픽 때문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되니까 600만 평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내주고 나머지 550만 평이 지금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된 거죠.

동아건설은 토지가 농업용으로 묶여 있어서 20년 동안 용도 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신도시가 여기저기 만들어지니까 동아건설도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용도 변경이 잘 안됐던 거죠. 테마파크 같은 관광 용지로의 용도 변경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소유주가 농어촌공사로 넘어갔다가 토지 공사로 바뀌게 됐어요.

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잇다

영종과 송도를 잇는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내린 사람이 송도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기업이 공항과 항만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도시의 경쟁력과 이어지거든요. 인천대교가 놓이면서 영종의 공항 기능과 송도의 업무, 주거 기능이 비로소 하나의 생활권에 가까워졌어요.

이런 대규모 기반시설은 설계와 시공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죠. 사업의 위험을 누가 감당할지, 민간 자본은 어떤 조건으로



[그림 15] 영종대교 전경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10.1.28.)



[그림 16] 인천대교 전경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10.1.28.)

들어올지, 중앙정부와는 어떻게 할지가 모두 중요한 문제였죠. 당시 인천대교를 둘러싼 논의에는 지역의 필요와 국가사업 조건이 함께 걸려 있었어요.

영종대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가 속한 서해구를 잇는 다리라면 인천대교는 영종과 송도와 잇는 교량이죠. 영종대교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건설됐어요. MRG 1호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삼성물산이 주축이 되어서 시공했어요.[7]

7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운영수입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공이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당시 영종대교 건설로 손해를 보면 보전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홍콩, 영국, 캐나다 자본을 유치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2009년 10월 준공된 인천대교 건설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증과 인가가 필요했어요. 2001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영국의 AMEC이 시행했어요. 당시 이인석 인천연구원 전임 원장이 청와대에 비서로 있었어요.[8] 이인석 원장이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인천대교 인가를 받는 데 도움을 줬을 거라 생각하죠. 이인석 원장은 나중에 인천연구원에서도 원장으로 오래 근무했었죠.

실패로 끝났지만 계획은 남았다

김대중 정부 시기, 역삼동의 무역센터(코엑스)가 포화 상태로, 전시 컨벤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도심에서는 큰 컨벤션센터를 짓기 어려워 제2수도권 국제무역센터 관련 사업이 계획되고 검토됐어요. 군함이나 탱크 같은 대형 전시물은 도심에서 전시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의 부지 확보가 필요했죠.

8 이인석은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을 지냈으며, 이후 인천연구원 제6·7대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림 17] 송도컨벤시아 2단계 확장공사 현장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17. 8. 4.)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였는데, 인천시도 신청서를 냈어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매립도 진행 중이니, 땅도 넓고 공항, 항만도 있으니, 컨벤션센터를 둘 자리라고 판단한 거죠. 당시 유필우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달 동안 밤새워 작업했어요.[9] 산업은행 쪽 재무 전문가도 참여했고, 공무원들도 발표 준비를 위해 힘을 모았지만, 결과는 탈락이

9 유필우는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이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발표까지 잘했는데, 탈락했어요. 당시 일산에 유치됐는데 인천이 됐으면 많이 달라졌겠죠.

하지만 컨벤션센터 유치전에서 떨어졌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어느 자리에 국제업무 기능을 모을지, 어떤 규모의 전시와 회의가 가능한 지, 주변 토지를 어떻게 쓸지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남았죠.

외국 개발사가 그린 새로운 송도의 풍경

초기 송도 개발에서 외국계 개발사의 참여는 자금만 들여온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업무, 주거, 공원, 호텔 등을 연결할지에 대한 다른 방식의 계획이 함께 들어



[그림 18] 송도국제도시개발구상 국제지명공모(1998)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김용하 제공

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송도 국제도시의 모습은 국내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보이기도 했어요. 1998년 국제지명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덜란드의 OMA안을 채택하여 송도매립지의 도시계획을 국제도시답게 수정했지요.

2001년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 회장이 송도를 방문했어요. 2003년 3월에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합작해서 송도 1, 3공구 173만평의 개발권을 취득하고, 국제업무단지로 개발했지요.[10] 중심상업지역 부지에 관심을 가지고 핵심시설로 컨벤션센터, 68층 동북아무역센터, 골프장, 주상복합 등을 개발하게 됐어요. 국제업무단지 마스터플랜과 핵심시설의 계획은 모두 게일 본사가 있는 맨해튼의 설계사무소 KPF가 짰어요.[11]

68층 동북아무역센터(現, 포스코타워)는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물이지요. 게일의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진 컨벤션센터(1,700억 원), 센트럴파크(2,100억 원)는 1달러만 받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했다고 해요.

센트럴파크도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갯벌을

10 송도신도시개발(NSC)은 미국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합작회사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다. 2007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사를 인천 송도로 이전하였다.

11 KPF(Kohn Pedersen Fox Associates) :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 및 건축설계사무소



[그림 19]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구상(KPF안)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김용하 제공



[그림 20] 송도의 상징 센트럴파크와 동북아무역센터(現, 포스코타워)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

매립한 다음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대한 물통을 만든 거예요. 그 위에 물을 채워서 인공호수를 만들었죠. 당시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었어요. 돈 문제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요. 지하도 대단해요. 컨벤션이나 오크우드 호텔, 롯데,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가 전부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조경도 미국 회사가 설계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에요. 외국 같다는 평가를 받죠. 게일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탄력을 불어넣은 건 사실이에요.

송도에 있는 더샵 퍼스트월드 같은 64층 아파트는 지진을 대비한 설계예요. 건물이 흔들리게끔 만들어져 있고, 제일 끝 위에 물탱크 추가 달려 있어서 지진이 나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요. 초기에는 자체 터빈 발전도 했어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가스 공급이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국제도시 송도, 그 선택과 남은 과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송도의 선택

도시 개발의 초기 정책은 늘 선택의 문제예요. 빨리 투자와 인구를 끌어들일 것인가, 지역 안에서 기회를 고르게 나눌 것인가. 송도의 초기 분양 정책은 송도를 서울 주거 시장과 연결해서 사람을 빨리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이 청약 1순위를 서울 사람들로 했어요. 인천을 1순위에서 제외한 거죠. 2순위가 경기도, 3순위가 인



[그림 21] 세련된 고층 고급아파트
출처: 김용하 제공

천이었어요. 서울 부유층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평수 제한도 있었어요. 35평 이상만 분양을 허용했어요. 당시 인천은 10~15평 위주였는데 돈 있는 사람, 서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미 설계가 끝난 성지, 풍림 같은 건설사에도 설계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다 풍림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결국 파산했



[그림 22] 2013년 조성된 송도 한옥단지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

죠. 물론 풍림이 파산한 원인은 복합적이었어요. 학익동 인하대 앞에 지은 50층 아파트 부지에 집창촌 보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인천도시가스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송도 아파트 미분양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어요.

돌이켜본 송도 개발의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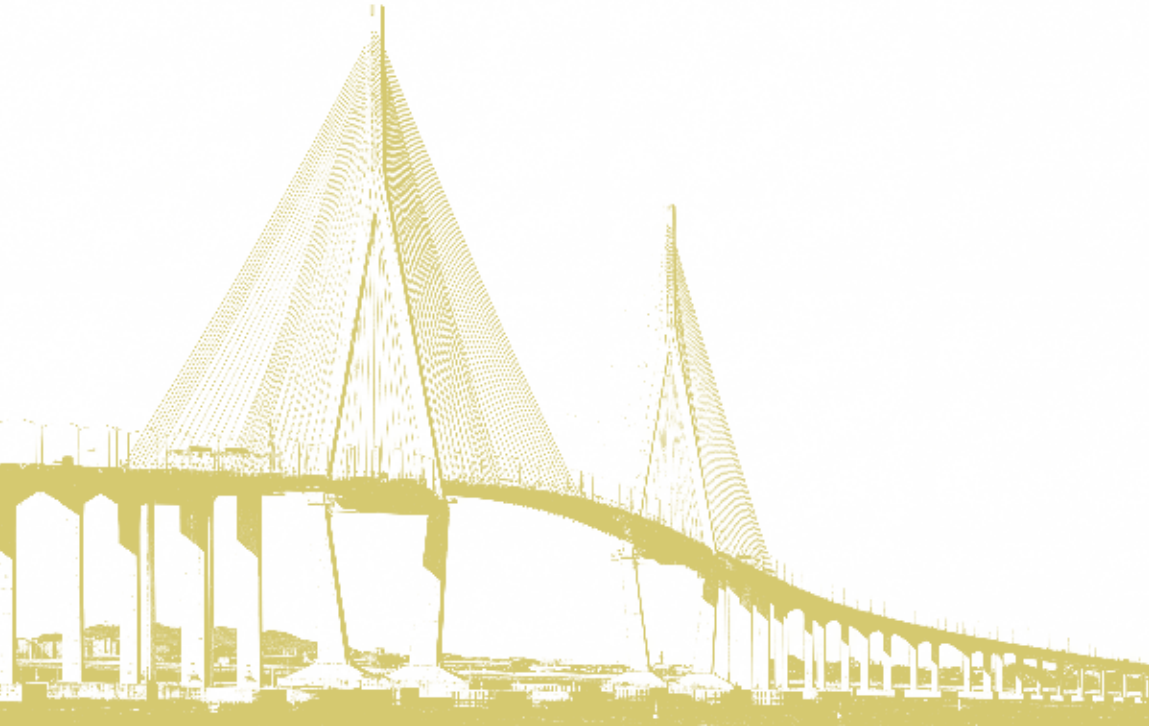
돌이켜 보면 송도 초기 개발은 성공과 한계가 모두 있어요. 첨단 건축 기술과 새로운 도시계획을 빠르게 도입했지만, 생활과 교통, 분양 시장처럼 주민이 매일 체감하는 문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죠. 도시의 외형을 만드는 속도와, 도시가 일상이 되는 속도가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송도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매립지를 국제도시로 바꿔 놓은 데 있어요. 공항과 항만, 연구와 교육, 컨벤션과 국제기구가 이어질 수 있는 무대를 만든 거죠. 더샵퍼스트월드 같은 64층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환승해야 하고, 지진 대비 설계에 최첨단 건축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송도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호로 자리 잡게 됐고, 지금의 국제도시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림 23] (上) 송도신도시 기본구상(2000.7.) / (下) 송도국제도시계획(2025.7.)
현재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2000년 인천시가 수립한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



명함 한 장에서 시작된 국제도시의 길

강병진의 이야기



- **채록일** 2025. 9. 4.
- **채록자** 서봉만, 홍승연
- **채록 장소** 인천연구원 2층 세미나실

- 인천광역시에 건강증진과와 국제협력과 등에서 근무했으며,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창단 멤버로 참여했다. 인천시 UN 기구지원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UN APCICT, UNESCAP 동북아사무소, UNISDR 관련 기구, NEASPEC,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 유치 업무를 추진했다. 이후 국제협력과장을 지낸 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제3대 상임이사(사업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송도에 국제기구의 문을 열다

송도의 첫 국제기구, APCICT를 유치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국제도시가 되는 건 아니죠.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실제로 와서 일하고, 국제회의가 열리고, 해외 기관이 일상적으로 드나들어야 그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 거죠. 인천이 국제기구 유치에 눈을 돌린 이유도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국제기구 하나를 유치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중앙정부와의 협의, 유엔의 절차, 예산과 보안 기준, 실무진과의 신뢰 등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맞아야 했죠.

2000년대 중반, 안상수 시장님 재임 때였어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뒤에도 초기 송도는 지금 같은 국제도시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기반시설은 공사 중이었고, 외국 기업과 외국인 거주자는 많지 않았죠. 그래서 국제기구 하나를 먼저 유치해 도시의 방향을 보여주자는 생각이 힘을 얻었어요.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뭔가 상징적인 국제기구라도 먼저 유치하면 간접적으로 투자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국제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었으니 UN 국제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APCICT[12]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발 역량을 키우는 UN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이에요. 송도가 정보화 신도시를 내세웠던 만큼, 이 기관의 성격은 송도의 초기 구상과도 잘 맞아떨어졌어요. 공항과 항만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지식과 교육을 다루는 도시라는 인상을 만들 수 있었죠.

당시 방콕의 UN ESCAP의 사무총장은 김학수라는 한국분이셨어요.[13] ESCAP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 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예요. 김학수 사무총장이 안상수 시장에게 한국에도 유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고, 인천시가 부지와 사무소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일이 시작됐어요.

유엔 국제기구 유치는 중앙정부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인천시, UN ESCAP, 중앙정부의 3자 합의가 필요했죠. 그래서 당시

12 APCICT(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산하 기관으로, 회원국의 ICT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식 공유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2006년 6월 16일 인천 송도에 개소하였다.

13 김학수는 유엔 사무차장 겸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 한국인 최초로 UN ESCAP 사무총장에 취임하였다. APCICT의 인천 송도 유치가 결정된 2005년 당시에도 UN ESCAP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림 24] UN APCICT Frontier ICT 프로그램 출시 기념행사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김학수 총장님이 중앙부처,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만나셨죠.[14] UN 국제기구 유치는 중앙부처를 통해야 하거든요. 지방정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 UN ESCAP, 중앙정부 3자 합의가 돼서 유치하게 된 거죠.

국제기구를 맞이하기 위한 전담팀의 탄생

기관 유치를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또

14 정보통신부는 1994년 체신부를 개편해 신설되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현재 관련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다른 일이에요.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보안과 통신은 어떤 기준으로 맞출지, 중앙정부와 유엔에는 어떤 순서로 보고할지가 모두 정리돼야 했죠. 전담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복잡한 일을 한곳에서 처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안상수 시장은 시청 과학기술과 산하에 'UN기구 지원팀'을 만들었어요. 당시 타 지자체에는 없는, 국내 유일의 행정조직이었죠. APCICT를 유치하려면 앞서 말한 대로 전담 조직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갔을 땐 이미 APCICT



[그림 25] UN ESCAP 총회 개회식 송도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촬영일: 2010.5.17)

와 MOU를 맺은 상태였고, 세부적인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처음 팀 구성은 4명이었어요. 5급 사무관인 팀장, 6급 1명, 7급 2명으로 구성됐죠. 당시 저는 6급이었고, 실질적으로 실무는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된 이후로 방콕을 정말 많이 갔어요. UN ESCAP 본부가 거기 있었거든요. 실무진들하고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협의했죠. 프로토콜[15]도 만들고, 사무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필요한 시설은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UN 제반 규정들을 방콕에 가서 하나하나 배웠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UN 국제기구는 테러 보안에 대비해서 별도의 단독 건물로 있는 게 좋거든요. 진입 차량 차단벽, 보안 시설,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당시 경제청이 송도에 4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공영개발사업단, 나중에 도시개발사업단이 됐는데, 그 건물하고 경제청 건물을 맞바꿨어요.[16] 경제청은 그쪽으로 가고, 그 건물

15 프로토콜(protocol)은 국제기구와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의전, 연락·보고 체계 등 일련의 운영 기준을 말한다.

16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택지 조성, 공공건축 및 기반시설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조직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림 26] 송도 G-타워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촬영일: 2021.11.2.)

에다 APCICT를 설치하자고 한 거죠.

그런데 원래 경제청 건물이었으니까 차량 진입 보안 검색 절차나 장비 같은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출입문에 방탄유리도 설치해야 했고, 출입 통제 시스템도 새로 갖춰야 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죠.

두 번째는 통신 보안이었어요.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 UN 통신망을 쓰다 보니까 컴퓨터 통신 보안 라인을 우리가 다 갖춰

야 했어요. 모든 사무 장비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그걸 전부 배에 실어서 방콕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방콕의 테크니션들이 그걸 다 검색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장치를 서버에 붙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뉴욕 본부로 보내고, 뉴욕에서 재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서 우리가 설치하는 방식이었죠. 한국-방콕-뉴욕-한국,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셈이었어요.

사무실 구조도 UN 규정에 맞춰야 했어요. 제가 방콕 사무실에 직접 가서 거기 배치 도면을 보고 연구했어요. 방콕에서 인테리어 설계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었죠. 배치도도 만들어서 거기 맞춰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오픈했어요.

송도에 들어선 대한민국 첫 UN 공식기구

APCICT 개소는 송도에 국제기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했어요. 이후 다른 기관을 설득할 때도, 인천이 이제 막 계획을 내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유엔 기관을 유치해 본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첫 사례가 다음 유치의 신뢰를 만드는 셈이었어요.

드디어 2006년 6월, APCICT가 문을 열었어요. APCICT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UN 공식 기구였어요. 서울에는 다른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소위 말하는 연락사무소인 '리에종 오피스(Liaison Office)[17]에 불과한 것이었죠.

UN 총회를 거쳐 승인받아서 정식으로 오픈한 것은 국내에서 송도가 처음이었어요. 송도에 정식 유엔 기구가 들어섰다는 사실은, 송도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니라 진짜 국제도시로 가는 첫 발을 뗐다는 것으로 큰 의미이자 상징이 됐죠.

물론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APCICT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고, 주변은 온통 공사판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이게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이후 10년간 인천에 수도 서울을 뛰어넘는 9개의 UN 산하 기구를 포함한 14개의 국제기구가 잇따라 들어왔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APCICT였죠.

17 리에종 오피스(Liaison Office)는 본부 또는 관련 기관과의 연락·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연락사무소를 말한다. 국제기구의 조직 형태와 지위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혼자서 길을 찾다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구조

국제기구 유치는 지방정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유엔 기구는 기본적으로 회원국 정부와 공식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실무를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외교, 행정 채널을 통해야 했죠. 인천시가 느낀 답답함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식 통로가 좁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기구가 새 사무소를 만들려는지, 누가 실무를 맡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알아내야 제안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국제회의 자료와 기관의 홈페이지, 사람들의 소개가 모두 중요한 정보원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과 답답함은 단순히 담당자를 만나기 힘들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UN 기구는 중앙정부만 상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그 체계 안에서 직접 협상하기 어려웠죠. 인천시는 도시를 준비하고 예산을 마련할 수 있어도, 외교적 절차와 공식 연락은 중앙정부를 거쳐야 했어요. 사실 지방정부가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방정부는 파트너로 동등한 입장이 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국제기구라는 게 원래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정부 간 조직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국제법적 지위가 없어요. UN 같은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공식 창구고, 지방정부는 그냥 행정구역일 뿐이에요. 그러니 지방자치단체가 초청을 받아서 간다거나 하는 일은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림 27] 송도국제도시 항공사진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연도: 2020)

그러니까 인천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중앙정부에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인천은 송도를 국제도시로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바쁠 게 없잖아요.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절차도 번거롭고요. 어떤 UN 기구가 새로 생기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냥 UN 국제회의나 참가해서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당시 중앙부처는 왜 우리가 인천시 일을 해줘야 하냐는 분위기였죠.

인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으면 컨택 포인트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유치는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오는 공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초청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제기구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새로운 센터를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정보 자체를 접하기 어려우니까요.

중앙부처를 찾아가면 핀잔이나 듣고 왔었어요. "지방정부가 무슨 국제기구 유치를 해? 국제기구 유치는 국가 외교 사안인데 지방정부가 나서는 게 맞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UN 본부나 지역사무소에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공식 채널이 아니니까요. 만약 인천시가 직접 연락하면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하느냐"는 반응이 나올 게 뻔



[그림 28]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촬영일: 2013.12.4.)

했어요.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회원국 정부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지방정부를 상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지역사무소를 만든다거나, 센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다 중앙정부 라인으로만 흘러요. 외교부나 관련 부처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도, 지방정부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에 그런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UN 홈페이지를 뒤지고, 국제회의 자료를 찾아보고, 외국 사례를 검색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보를 모았어요. 어떤 기구가 있는지, 그 기구가 하는 일이 뭔지, 지역사무소는 어디에 있는지, 새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다 혼자 공부했죠.

네트워크도 없었어요. 다른 지방정부들은 국제기구 유치를 안 하니까 물어볼 데도 없었고, 중앙정부는 안 도와주니까 배울 데도 없었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길을 찾아야 했어요. 지도도 없이 밤길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송도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진짜 국제기구가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텅 빈 매립지에 건물만 세운다고 국제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국제기구가 있어야, 외국 사람들이 일하러 오고 국제회의가 열려야 그게 진짜 국제도시죠. 시장님도 그걸 아셨어요. 안상수 시장님이 2002년에 취임하시면서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



[그림 29] 송도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지원체제 국제회의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연도: 2023)

기구를 유치해야 한다, 그게 송도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국제기구 유치를 전담하라"고 하신 거예요.

중앙정부가 안 도와줘도, 컨택 포인트가 없어도, 정보가 없어도,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그게 제 임무였고, 송도의 미래였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

참관인 자격으로 간 국제회의

공식 회의는 정해진 의제와 순서에 따라 움직여요. 하지만 쉬는 시간의 복도에서는 다음 사업, 새로운 조직,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계획과 같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죠. 복도 외교는 공식 제안을 준비할 정보를 얻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돌파구였어요.

이미 네트워크가 있는 곳은 초청장과 공문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인천처럼 출발선에 선 도시는 누군가에게 먼저 이름을 알리고 다음 연락을 이어갈 실마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이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게, 큰 UN 국제회의가 있으면 참관인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참관은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갖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의의 분위기를 직접 보고, 어떤 의제가 떠오르는지 듣고, 현장의 관계자를 만들 수 있는 자리였죠. 공식 초청장이 없는 지방정부 실무자에게는 그 자체로 드문 출발점이었어요.

UN 국제회의에 정식 초청받은 건 아니지만, 국제회의에는 정회원국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방청석이 있거든요. 참관인 자격

으로 회의를 지켜볼 수 있는 자리죠.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없어도 회의장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저에게 정작 회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회의장 밖이 더 중요했죠. 회의장 안에서는 청중으로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관계자들이 복도에서 서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그때가 저한테는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명함 한 장의 가치

명함은 연락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새 조직이나 사업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지도였죠.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중앙정부에 제안할 자료도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국제회의 쉬는 시간에 UN 사람들을 그 복도에서 접촉했어요. 회의장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복도에서 나와요. 커피 한 잔 들고 서서 얘기하면서 명함도 주고받고 "요즘 어떤



[그림30] 송도 G타워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촬영일: 2021.11.2.)

프로젝트 하세요?", "새로운 센터 설립 계획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트는 거죠.

그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얘기하다 보면, 회의 중에도 이제 힌트가 들려요. "이 분야에 지역사무소가 없다.", "아시아 지역 커버리지가 부족하다.",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UN 국제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신호예요. 그걸 빨리 캐치해서 관계자 명함을 받고, 조사하고, 한국 들어와서 중앙부처에 연락하는 거죠.

중앙부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중앙부처 사람들은 국제회의에 가도 회의장 안에서만 있다가 오거든요. 공식 회의만 참석하고, 복도에서 네트워킹 같은 건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오히려 복도가 참석의 목적이었으니까,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었죠.

그렇게 받은 명함이 정말 중요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메일 보내고 전화해서, "그때 회의에서 뵀던 인천시 강병진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안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거죠. 처음부터 공식 채널로 가면 문전박대 당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난 사람한테 연락하면 훨씬 반응이 좋았어요.

국제회의장 복도에서 명함 한 장 받은 게, 나중에 국제기구 유

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실무진 실사단에 포함되어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윗사람을 소개받기도 하고요. 네트워킹이 전부였어요.

저한테는 공식 채널이 없었으니까, 그런 비공식 채널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UN 관계자들을 만나려면, 국제회의장 복도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서 사람 만나고, 정보 얻고, 관계 쌓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명함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집에 명함첩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다 엑셀로 정리해서 후임자들한테 넘겨줬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연락처를 전혀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전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통화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되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명함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방콕에서 만난 실무자, 뉴욕 회의에서 만난 국장급, 제네바에서 만난 프로그램 담당자, 다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제기구 유치의 키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한국의 중앙부처에 자료 준비해서 가면, 그제서야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설득이 되는 거죠. 사실 UN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중앙부처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만

난 사람들, 그 명함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결국 국제기구 유치의 길을 열었어요. 공식 채널이 없으면 비공식 채널을 만들어야 했고, 그게 바로 제가 취했던 복도 외교 전략이었어요.



송도를 동북아 국제협력의 거점으로

베이징과 경쟁해 따낸 ESCAP 동북아사무소

ESCAP 동북아사무소의 의미는 단순히 국제 기구 유치 하나가 늘었다는 데 있지 않았어요. 동북아 여러 나라가 경제, 환경과 같은 공통 과제를 논의할 때 인천이 그 논의의 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국제도시는 건물의 외관이나 높이보다, 그런 국가 간 연결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로 더 분명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치한 국제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UN ESCAP 산하의 동북아 지역사무소예요. UN에도 여러 기구들이 많은데, 그중 중심이 되는 조직은 경제사회이사회거든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역별로 본부를 두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방콕에 있는 ESCAP이거든요.



[그림 31] UN ESCAP 동북아 5개국 대표 자문회의 인천 개최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연도: 2010)

반기문 총장님이 2007년 UN 사무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UN에서 개발 분야 강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사무소를 더 세분화하자는 결의가 나왔어요. 200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서, 방콕 본부 외에 동북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지역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거죠. 동북아 지역사무소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이렇게 6개국을 관할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남들은 다 똑같은 국제기구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UN 각종 행사가 있거나 귀빈이 오거나 모든 지시 사항이 오면,



[그림 32]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소장 방문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연도: 2010)

ESCAP을 통해서 방콕으로 갔다가 방콕에서 여기 동북아 지역 사무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심이 되는 사무소인 거죠. 그래서 제가 ESCAP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베이징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이미 정식 사무소를 세우기 전에 베이징에 임시 사무실 조그마한 곳을 마련해 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 루트로 정보를 입수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뺏어 온 셈이죠. 당시 우리가 미팅을 중국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실사단 5명이 한국에 왔었는데, 오기 전부터 그 사람들하고 계속 국제 전화나 연락을 통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했죠.

정보를 토대로 중국은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지원과 사무실까지 제공하겠다고 설득한 거죠. 2009년 8월에 인천 유치가 확정됐고, 2010년 5월 17일에 송도 미추홀타워 17층에 개소했어요. UN 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UN 산하 지역사무소로는 국내 최초로 유치한 거죠. 그 일이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유치 성과라고 생각돼요.

UN ESCAP 총회를 송도로 가져오다

ESCAP 동북아사무소를 유치하고 나니, UN ESCAP 총회도 송도에서 개최하게 됐죠. 매년 방콕에서 열리는 제66차 총회를,



[그림 33] UN ESCAP 총회 송도 컨벤시아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촬영일: 2010.5.17.)



[그림 34] 국제회의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는 송도컨벤시아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09.9.2.)

2010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우리가 개최한 거죠. 주제는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시스템과 녹색성장'이었어요. 그때도 외교부에서 인천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어요. 개최지에서 모든 것을 케어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송도에 동북아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는 명분이 있으니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죠.

제66차 총회는 예년에 비해서 고위급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

요. 정상급 인사도 세 분 오시고, 각료도 20여 분 오신 큰 행사로 치러졌어요.

국제회의의 효과를 호텔 객실 수나 참가자 수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도시가 회의를 안정적으로 열 수 있다는 경험, 관계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신뢰, 지역의 행정조직이 국제업무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남거든요. 송도는 그런 경험을 하나씩 쌓아 가고 있었어요.



성공과 좌절 속에서 쌓인 국제도시의 경험

끝내 잡지 못한 국제기구들

유치 경쟁에서 마지막까지 간다고 해서 반드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에요. 한 기관이 어느 도시에 들어갈지는 건물과 예산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선택, 지역의 조건, 발표 시점, 다른 도시의 제안처럼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실패한 유치전도 도시가 국제기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죠.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한 적도 있지만, 좌절한 적도 많았

어요. UN Habitat[18]도 무산됐었고 IOM[19] 이민정책연구원도 유치에 실패했죠.

가장 아까운 건 IOM 이민정책연구원이에요. IOM과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하는 이민정책 연구 및 교육훈련 기관인데, 거의 다 됐었어요. 실무선에서는 인천에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기도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12월 고양시에 개원하게 됐죠.

인천은 하와이 이민선이 출항한 대한민국 첫 공식 이민 출발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월미도에 만들었고요. 송도에 IOM 이민정책연구원을 유치하면 완벽하게 연결되거든요. 인천의 이민 역사와 국제이주기구가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안상수 시장님이 굉장히 유치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네바도 여러 번 갔었어요. 국제이주기구의 본부가 제네바에 있거든요.

---

18 UN-Habitat(유엔인간정주계획)는 1978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급속한 도시화와 슬럼·비공식 정착지 확산 등 도시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

19 IOM(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실향민과 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지역 신문사에서 "IOM이 송도에 유치됐다"는 기사를 터트린 거예요. 우리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산에서 인천이 유치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거죠. 당시 일산 호수공원 쪽 지역 개발이 한창이었는데, 고양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할 국제기구가 필요해서 인천보다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IOM 측에 제시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아쉬운 일이었어요.

재난·환경·법률 분야로 넓어진 국제기구 유치

국제기구 유치 효과는 간판 하나를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관련 회의와 교육, 실무자 방문이 이어질 때 비로소 도시 안에 사람과 경험이 쌓이죠. 재난위험경감, 법률, 정보통신, 이주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기관이 모이면 도시도 한 가지 얼굴로만 남지 않아요. 인천은 공항도시이면서 물류도시이고, 동시에 국제 협력의 의제를 다루는 장소가 되는 거죠. 국제기구 유치의 의미는 바로 그 역할을 넓히는 데 있었죠.

유치 실패 경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성공한 것들이 더 많



[그림 35] UN ISDR 캠페인 가입 조인식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연도: 2013)

았어요. 재난위험경감기구인 ISDR도 유치했었죠.[20] 2009년에 동북아사무소하고 방재연수원, 이렇게 UN ISDR 관련 기구 두 곳을 한꺼번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관련 국제회의까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센터나 기구를 유치하면서 관련 회의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국제기구 유치하면 언론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관의 유

20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은 유엔의 재난위험경감 활동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운영된 체계로, 재난 예방과 위험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원하였다. 이후 관련 기능은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로 이어졌다.



[그림 36] 제4차 UN 재해경감아시아각료회의 개막식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연도: 2010)

치 효과가 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증명하려면, 유치에 성공한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인천에 개최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하여 회의도 참가하고, 숙박업소 이용은 물론 지역관광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 10월, 제4차 UN 재해경감아시아각료회의(AMCDRR)를 송도에서 개최했어요. 아시아 65개국에서 800여 명이 참석했죠. 이런 식으로 행사를 계속 유치했어요.

NEASPEC도 유치했는데, 이거는 ESCAP에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21]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몽골까지 가서 유치 경쟁한 결과였어요. NEASPEC은 중국, 북한,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 함께 겪는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협력체계거든요. 규모가 큰 조직은 아니어도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통로가 송도에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UNCITRAL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22] UNCITRAL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거든요. UNCITRAL은 제가 정보를 먼저 알아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온 케이스였어요. 법무부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가 있는 UNCITRAL의 동북아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고 싶은데, 법무부는 국제기구 설립 경험과 절차를 잘 모르니 인천시와 함께 유치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비엔나에 가서 유치 작업을 시작했어요. 중간까지 진행하다 제가 유학을 가게 되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게 됐어요. UNCITRAL은 아시아, 태

21 NEASPEC(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은 1993년 출범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체계로, UN ESCAP 동북아사무소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한다.

22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은 국제매매, 전자상거래, 중재, 도산 등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기준의 현대화와 조화를 추진하는 유엔의 핵심 법률기구이다.

평양 국가들이 국제거래법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고, 각국의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과 자문, 회의를 맡는 기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송도에 하나 더 들어선 거죠.

국제기구 유치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기관의 의사결정은 길게는 몇 년씩 걸리고, 한 번 쌓은 관계도 연락이 끊기면 금세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누가 맡아도 이어갈 수 있게 연락망과 자료를 남기는 일이 중요해요.



[그림 37] UN기구기탁도서관(現, 송도국제기구도서관)
UN기구기탁도서관은 유엔의 주요 문서와 간행물을 제공하는 자료 공간이다. 2009년 유엔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송도국제기구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촬영연도: 2020), 공공누리 제1유형

유치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었다

국제기구는 유치가 끝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 관리해야 해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사무소가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국제기구 유치는 한 번 설립하고 끝나는 성과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고 다음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약속에 가까워요.

유학을 다녀온 뒤 승진하면서 국제협력과장으로 갔어요. 어느 날 비엔나에서 온 UNCITRAL 관계자가 회의를 하고 싶다며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회의장에 갔는데, UNCITRAL 유치 때 비



[그림 38] 인천 소재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함께한 국제협력 행사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일: 2017.4.17.)



[그림 39]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촬영일: 2017.4.17.)

엔나에서 만났던 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도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제가 아직 인천시에 있는지 몰랐고, 저도 그분이 여전히 UNCITRAL에 계신 줄 몰랐어요. 송도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다가, 인천에 온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인천시가 보조금 지원을 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UNCITRAL 쪽에서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도시나 국가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인천시에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어요.



UNAPCICT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교육원
아시아·태평양 정보격차 해소 및 ICT 인력양성

2006

EAAFP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 및 협력

UNDRR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동북아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 대응

UNDRR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재난위험경감 교육훈련 및 방재 전문가 양성

2009

UN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국제거래법 협력 및 국제무역 활성화

UNOSD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
지속가능발전 전략·지식공유 및 교육훈련

GCF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2013

2012

UNESCAP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사회 협력

UNNEASPEC
동북아시아 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
동북아 환경협력 및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AFOB
아시아 생물공학 연합체
생물공학 연구·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2010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선거 분야 교육훈련 및 선거기관 전문성 강화

WB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국제개발금융 및 국제기구 연계 협력

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인천사무소
개도국 녹색성장 정책 역량 강화

2014

UNPOG
유엔 거버넌스 센터
공공행정 혁신정책 및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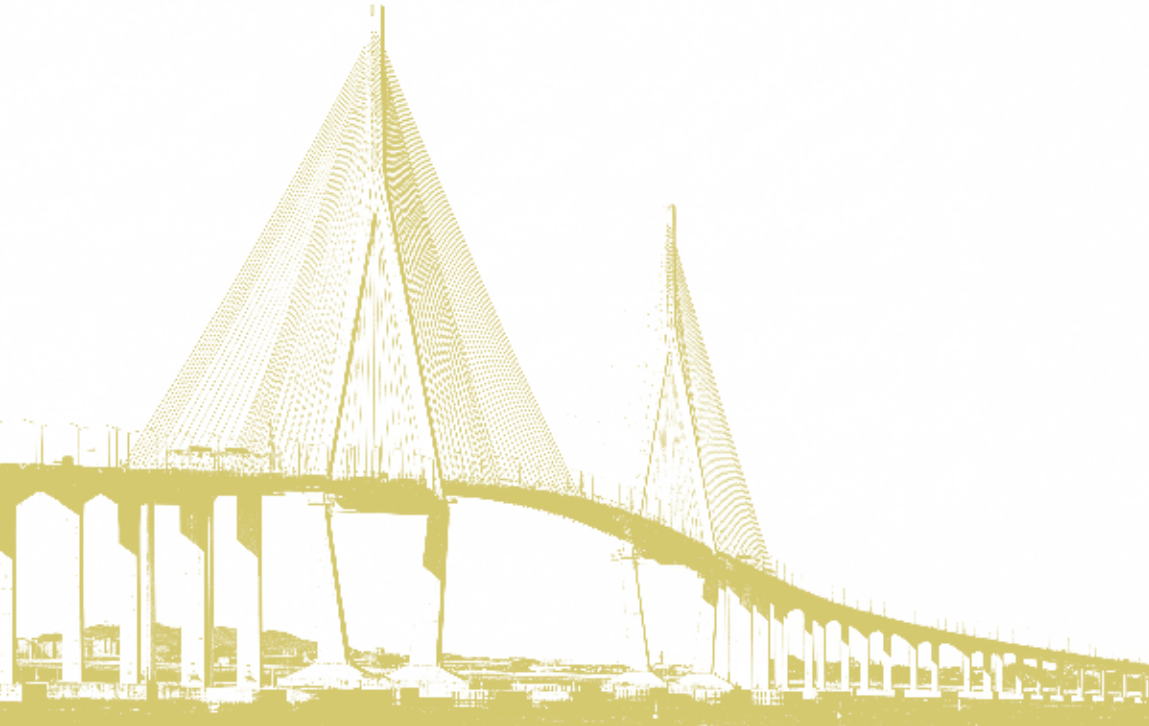
2017

CTCN
기후기술센터 협력연락사무소
기후기술 지원·컨설팅 및 GCF 사업 연계

2022

[그림 40] 국제기구와 함께 성장한 송도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소개」

그래서 제가 유치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산도 확보해 드릴 테니, 관련 회의를 계속 송도에서 열어달라고요. 시민들 사이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말도 있으니, 인천시 차원에서도 사람들을 모으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국제기구 유치는 그렇게 한 번 따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소문이 생겨도 바로 설명하고,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일이죠.



처음의 꿈에서 남은 과제까지, 송도를 다시 보다

이인석의 이야기



- **채록일** 2025. 12. 3.
- **채록자** 이인재, 홍승연
- **채록 장소** 구술자 자택 인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29년간 근무하며 독일·스위스 등 해외 무역관에서 활동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산업통신과학비서관과 건설교통비서관을 지냈으며, 2000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現, 인천연구원) 제6·7대 원장으로 재직했다. 원장 재임 기간에는 인천의 지역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연구원의 주요 과제로 삼고, 송도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인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퇴임 후에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대학 석좌교수와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인천의 경제·통상 발전에 힘썼다.



개항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이어진 도시의 흐름

오래된 일을 기억해 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기억이 남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왜곡되거나 각색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확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볼 때는 어느 한 시점만 떼어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에는 그 도시만의 흐름이 있어요. 강물은 계속 바뀌어도 강 자체는 이어지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바깥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도시 안으로 연결해 온 역할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인천은 처음부터 바깥과 만나는 창구 역할을 해 온 도시였어요. 개항 뒤에는 조계지가 있었고, 이후에는 외국 자본과 기술, 한국의 토지와 노동이 만나는 공업단지가 생겼죠. 주안과 부평의 공단이 그 한 장면이고, 1990년대의 남동공단도 그 흐름 위에 있어요.

그다음 세대에 나온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봐요. 경제자유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개발사업이 아니라, 인천이 자기 도시 기능을 새 시대에 맞게 바꾸려 했던 과정의 일부였어

요. 저는 그것을 인천이 본래의 경로를 다시 찾으려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송도를 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이 부상하고 서해가 열리면서, 인천은 동북아 시대의 관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나왔죠. 송도 개발도 단지 땅을 만들어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인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었어요.



바다 위에 그린 관문 도시

외환위기 때는 나라 전체가 어려웠어요. 그때 살길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죠. 인천도 매립이 다 끝나기도 전부터 해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동북아 시대의 도시를 이야기했어요. 아직 바닷물이 있는 곳에 미래의 도시를 그린 셈이에요.

당시 최기선 시장은 인천을 단순히 개발할 도시가 아니라 동북아와 연결된 도시로 보려 했어요. 인천은 공항과 항만, 그리고 앞으로 연결될 길을 갖게 될 도시였으니까요. 바다를 메운 땅



[그림 41] 개발 중인 송도 전경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홈페이지(촬영연도: 2009)

위에 기업과 연구기관, 국제업무 기능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그 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계획만 세운다고 도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항과 항만, 통신과 도로, 연구기관과 생활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기업도 사람도 머물 수 있어요. 송도는 땅을 만드는 일과, 그 땅이 어떤 도시가 될지를 계속 설계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된 곳이었어요.

저는 공항 개항과 연륙교 결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따로 떨어진 일로 보지 않아요. 공항이라는 관문을 만들고, 다리와 도



[그림 42] 인천대교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25.6.15.)

로로 도시권을 연결하고, 그 안에 기업과 사람이 머물 제도를 만든 일이 이어진 거죠. 인천대교도 다리 하나의 건설로만 보면 부족해요. 영종의 공항 기능과 송도의 도시 기능을 한 생활권으로 잇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기반 시설은 설계와 시공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누가 사업의 위험을 감당할지, 민간 자본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지, 중앙정부의 인가와 보증을 어떻게 받을지 여러 가지 판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도시 개발은 현장의 공사와 제도, 재정과 정책 판단이 만나는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정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지정 뒤에는 재정과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떤 산업을 유치할지, 국제도시의 생활 여건을 무엇부터 만들지 다시 정해야 했어요. 이름과 제도를 먼저 얻은 뒤, 그 안에 실제 도시의 내용을 채워 넣어야 했던 거예요.

‘한국형 실리콘밸리’라는 꿈을 다시 보다

송도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비유를 조심스럽게 봤어요. 실리콘밸리가 되려면 기업만이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투자와 인재,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산업 생태계가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림 43] 송도국제도시 전경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촬영일: 2021.11.2.)

매립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땅이 만들어진 뒤에도 도시가 자리를 잡고 산업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넓은 땅과 높은 건물만으로 지식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화 신도시라는 이름에는 그 조건을 하나씩 갖춰 가야 한다는 과제까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인천에 이미 있던 제조업과 새로운 지식산업이 만나야 했죠. 물류나 금융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인천의 산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기술과 결합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어야 합니다.



처음의 꿈과 남은 과제

인천연구원에 원장으로 있을 때 지역 신문을 오래 살펴봤어요. 송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재정 부담이 크다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계속 열었습니다. 송도를 단지 부동산 개발로 볼 것이 아니라, 인천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지를 놓고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림 44]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B.C 개발사업 일대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17.10.6.)

처음의 계획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북아 물류와 국제업무, 외국 기업 유치를 함께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의 관심이 주거와 분양, 아파트 가격으로 좁아진 측면이 있죠. 송도의 성과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출발할 때의 목표와 지금의 모습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시민이 알고 싶은 것도 결국 그거예요.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실제 생활을 무엇으로 바꾸는지, 어떤 기업이 들어와 어떤 일을



[그림 45]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B.C 개발사업 일대
출처: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촬영일: 2025.1.17.)

만드는지, 외국인과 지역 주민은 어떻게 만나고, 송도의 성장이 인천의 다른 지역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이에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국제도시라는 말도 내용을 갖게 됩니다.

청년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인천에서 공부한 젊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자기 미래를 찾을 수 있어야 하죠. 송도는 인천의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인천 전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을 다시 찾는 일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참고자료 및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교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관세청 등

사진·도판 제공 및 출처
인천광역시청·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김용하

※ 공공저작물은 각 자료에 표시된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❷

바다 위에 그린 꿈

: 송도국제도시의 탄생과 도전

초판 1쇄 인쇄 • 2026년 1월 31일
초판 1쇄 발행 • 2026년 1월 31일

엮은이 • 인천연구원
펴낸이 • 최계운
펴낸곳 • 인천연구원
주소_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_032-260-2600 팩스_032-260-2799
URL_http://www.ii.re.kr
디자인 • 도서출판 다인아트

© 인천연구원, 2026
Printed in Korea

ISBN 979-11-6870-375-9 (93320)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시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정책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1996년 개원 이래 인천의 도시·경제·사회·환경 전반의 현안을 조사·연구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
Urban Data & Information Center, UDIC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는 시정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연구자와 시민에게 공유하는 도시정보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운영, 도시 기초 통계와 공공·민간 빅데이터 분석 지원, GIS 기술 지원 및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데이터 브리프 발행, 연구 성과물 보존·관리 및 자료실 운영, 연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이 있습니다.

송도는 인천의 한 부분이지만, 인천 전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을 다시 찾는 일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 이인석의 이야기 중에서



ISBN 979-11-6870-375-9
(93320)
비매품